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②

가야산 자락이 한껏 멋을 부리다가 이제는 한을 한을 벗어 버리게 시작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무상법문을 설하는데, 우리들은 즐겁 졸만 알았지 자신을 바라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모두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까? 대자연은 스스로 웃을 입과 혀를 대어 자유롭건만,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신의 허물을 벗고 무소유로 돌아가 올바른 부처노릇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인색한 모양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자성(自性)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자성이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천수경(千手經)의 사홍사연(四弘誓願)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처인

가장 큰 나로 최대한 키운 것이 부처님의 대아인 것이다. 아집(我執)은 몸과 함께 생긴 것이므로 구생혹(俱生惑)이라 하거니와, 육체가 있는 한 아집을 버리기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해탈을 위하여 아집을 끊는 것이 이상이지만 작은 나를 보다 큰 나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소견이요, 남을 위한 것이 곧 보살도(菩薩道)인 것이다. 이렇듯 부처노릇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해능스님은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 마하반야바라밀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건만, 다만 어리석고 깨달은 것이 같

본래 갖춘 자성이 곧 부처

"남 위하는게 자기 잘사는 법"

줄을 알기는 쉬우나 부처노릇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를, 참선, 참회, 기도 등 다양한 수행 정진이 부처노릇을 하도록 이끄는 길잡이임을 알아야 한다.

자심(自心)의 부처가 부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중생의 자리로 옮겨갈 때 이것을 제도하는 것이 자성증생서원도(自性生靈願度)이다. 자심의 부처가 번뇌를 일으킬 때 이것을 끊고자 하는 것이 자성번뇌서원단(自性煩惱斷斷)이며, 자심의 부처가 본래 구족한 공덕을 활용치 않을 때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자성법문서원학(自性法門顯學)이고, 자심의 부처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자성불도서원성(自性佛道顯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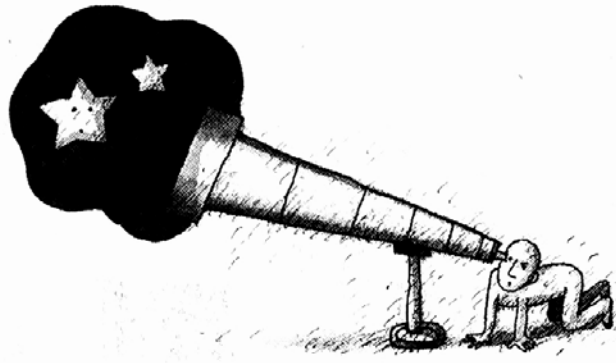
중생은 소아(小我)에 집착하기 때문에 증생노릇을 하고 부처는 대아(大我)에 만족하기 때문에 부처노릇을 할뿐이다. 소아와 대아의 중간에는 무수한 '아(我)'가 있다. 나라고 할 때는 자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작은 나요, 우리라고 할 때는 나보다 조금 범위가 큰 것이다. 이웃은 가정보다 조금 큰 나요, 마을은 이웃보다 조금 큰 나다. 이렇게 제일 작은 나에서

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해서 그대들로 하여금 각각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제히 들으라. (當知惡人智人的佛性이本無差別이언마는只緣迷悟不同 所以有愚有智니 吾今爲說摩訶般若波羅密法하여 使汝等으로 各得智慧케 하리니 志心諦聽하라.)

우리는 흔히 반야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입으로만 퍼드려는 구녕반야(口念般若)일뿐, 아직 반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백날을 하여도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으로써 실천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다.

해능스님의 법(法)이 다름아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법임을 이로써 여실히 보인 것이며, 이것은 5조 홍인대사(弘忍大師)로부터 받은 <금강경>의 반야바라밀법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능스님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부처노릇을 하기 위해 반야바라밀법을 수행하라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우주는 움직이는 하나의 그물

불교와 과학 <5>

우주적 기하학

고대 회랍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플라톤의 철학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그의 우주관이 2000년 가까이 서구 근대과학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려 한다. 플라톤이 알아낸 사실 중에는 엄청난 기하학적 발견이 있다. 그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정다면체의 수는 오로지 다섯 개뿐이라는 사실이다. 4, 6, 8, 12, 20 정다면체가 그것이다. 일일이 그려보지도 않고, 정24면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아가 정12828면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한 플라톤의 획기적인 아이

추상적으로 구성된 6개의 원이 바로 행성의 궤도가 된다고 서구 근대인은 보았다. 왜냐하면 기하학적 진리가 곧 경험적인 천체의 진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합리주의의 전통의 결과로써 천문학을 재구성한 결과이며, 이러한 재구성에 대하여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이 부여해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망원경을 통해서 본 당시의 행성의 수는 정확히 여섯 개였다. 결국 기하학의 진리는 곧 경험세계의 진리와 같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자 물체 움직일때 공간 휘어져

학업경 만물 인연으로 얽힌 인드라

이러한 서구의 기하학을 배운 이 선재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다. 그는 우주의 별들 사이에 내재하는 기하학적 구조가 있다고 믿었다. 이 선재의 연구과제는 고대 회랍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처럼 우주의 조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의 조화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인간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보았다. 이 선재는 음악대인 수학의 동원하여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과학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선재는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하여 우주 공간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체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특수 상대성이론과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쌍둥이 별의 기하학적 구조를 밝혀 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동원하여 우주 공간의 휨 현상을 찾아내어 별들 사이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비밀을 밝혀 냈다. 그는 우주 공간이 편평한 것이 아니라 휘어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 휘어 있는 공간의 의미는 공간 스스로 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던져진 물체가 운동할 경우에만 그 휘어 있음이 실현된다는 뜻이다.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물체가 갖는 질량과 속도에 따라 그 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내포한다. 그래서 그는 운동의 속도와 질량에 따른 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주 공간을 그물 망 구조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편평한 그물 망 위에 물체를 던질 때 그 그물 망이 휘어지는 정도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어느 정도 비례할 것이라는 과학적 예측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사각형 모양의 그물 망을 네 모서리에서 손으로 잡고 있다고 치자. 그런 그물 망 위에 갑자기 아주 무거운 물건을 던진다면 두 모서리 혹은 아주 더 무거운 물체라면 네 모서리 모두가 한 곳으로 모아질 것이다. 이런 우주의 공간을 비유할까 상상할 수 있다면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공간이 순간적인 시간차원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선재의 우주 천문학의 꿈이었다. 이런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던 스티븐 호킹의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는 도발적인 우주공간의 꿈이 실현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선재는 연구실에서 나와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화염경이라는 번역본을 쥐게 되었다. 그 책 안에는 인드라 망이라는 우주의 구조가 간단히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종교적인 환타지라고 여겼다. 그날 밤 이 선재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인드라 망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로만 그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타밀(Tamil)과 티베트. 이 두 민족에는 공통점이 있다. 신랄리즘의 스리랑카나 한족의 중국이라는 타민족의 나라에 속한 소수 민족으로 독립이나 자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민족에 대한 국내 불교계의 반응은 관이하게 다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정도로 국내 불자들은 티베트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반면 타밀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만 알고 있고, 그조차도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분리를 조정하는 '염치없는 민족'이라는 정도일 뿐이다.

지구촌 불교 / 스리랑카의 타밀족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불교시사잡지 <트라이시클> 지에 게재된 '전쟁터에 서 있는 불교'라는 기사는, 우리 스스로 힌두교도인 타밀족에게 막대한 '종교적 적대감'을 느끼지 않으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타불이(自他不二)'를 되짚어 보게 한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스님들이 타밀족 반군에게 군사적 압력을 더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트라이시클>의 보도 내용에는 타밀족에 대한 스리랑카 불교 교단의 입장에는, 내전 종결을 기원하는 곁집 캠페인을 펴는 '온건 노선'도 있지만, 성직은 명칭하는 '강경 노선'도 적잖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요구' 17년째 내전

폭탄테러 등 유혈투쟁에 6만여명 희생 불교교단 "비폭력" "성전" 강온파 갈려

지난 8월 7일 타밀족과의 유혈분쟁을 끝내고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안이 스리랑카 의회사상 처음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이 일은 로이터나 AP와 같은 국제 통신사에서 연일 보도할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7년간 6만2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개헌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의회의 표결은 8월 8일 돌연 연기됐다. 개헌안은 8일 오후 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개헌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는 개헌안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강경파 스님들은 개헌안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일부 각료마저 개헌안에 반대해, 정부로서는 아쩔 수 없이 '연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라이시클> 지는 "스리랑카는 부처님 땅이고 선택된 사람만 사는 곳이라는 진실이 신랄리즘을 더욱 배타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신랄리즘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연립정부의 내각 선서식이 진행되는 곳에서 자신의 몸에 폭탄을 장착한 괴한의 폭탄테러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10월 17일), 타밀 반군이 해군기지인 트린코말리에 정박 중인 함정을 폭탄을 실은 소형 선박으로 공격해 양쪽에서 24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10월 24일). 또 타밀 반군 측의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정부군에 체포돼 재교육 중인 25명이 주된 피해에 맞아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10월 25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스리랑카 내전의 특징인 자살 폭탄테러와 소년병 문제가 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97년 국내 한 소장학자의 "스리랑카의 내분 해결을 위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와 힌두교의 특성인 비폭력과 포용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야말로 스리랑카 스님과 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토통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통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통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통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 (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갑집, 영안실)

■生氣香...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백·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진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